

정읍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총력전

최근 10년간 1만4300명 감소 청년 정착 지원 통한 유입 증대 모든 출생아에 200만원 축하금 귀농·귀촌 지원 등 시책 다양

정읍시가 지역적·환경적·사회적 요인들을 접목한 인구정책사업을 발굴, 인구감소 속도 완화와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정읍 인구는 10만5000여 명으로 최근 10년간 1만4300여명이 감소해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시는 인구유입과 인구유출 방지에 주력하면서 생활(관계)인구 늘리기와 인구활력 제고, 정주 여건 개선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인구유입과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시책들이 돋보인다.

시는 올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 7억원을 활용해 청년취업 준비반을 운영하고 지역 취업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해 청년들의 정착지원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도 추



정읍시보건소 관계자가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진한다. 시는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또 둘째는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출생축하금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산모의 출산 후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사업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남임부부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대학 신입생 장학금·구직지원금 지원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전일 지원금 지원, 기업

유치 관련 사업들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물론 평생학습지원, 시민 쉼터 및 체육시설 등 정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와 관광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저출산·고령화·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문제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인구활력 제고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144억 투입 장애인 복지 향상

평생학습센터 건립 등 41개 사업

고창군이 올해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등 41개 사업에 144억원을 투입,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나선다.

고창군은 우선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장애인체육관', '장애인평생학습센터' 건립에 속도를 낸다.

군은 지난해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투자, 건축기획용역과 설계용역 추진해 사업을 본격화 해나갈 방침이다.

장애인 연금은 전년 대비 5%로 인상된 월 최대 32만원의 기초급여를 지원한다. 18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전년 대비 50% 인상된 월 6만원을 지급해 장애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돕는다

또 성인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을 확대했다. 65세

이후 노인 장기 요양수급자로 전환해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임금도 상향조정(전일제 기준 9.5%)했다. 특히 고창군은 지난해 도내 최초로 최중증장애인 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전북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사업을 진행했다. 참여 장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사업은 올해도 계속된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자원(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차량 등)을 활용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사업'이 추진돼 관내 음식점 및 상가 등 주출입구의 문턱낮추기 사업이 추진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産 생강음료 이달부터 판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고창군 출연기관인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심덕섭 고창군수)가 고창 생강을 활용한 음료제품을 개발했다.

연구소는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2022년 농산물 활용 가공제품 시범사업에 농업회사법인 (주)고창에(대표 김영재)와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농업회사법인 고창에는 베리류, 야채, 과일, 산야초 등을 가공하여 주로 판매하는 기업이다. 기존 파우치 제품에서 소비자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345ml의 PET 병타입으로 제품을 출시해 이달부터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군 농특산품판매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고창 생강 활용한 음료.

연구소 관계자는 "고창군에서 재배되는 다양한 농특산물이 연구소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아져 소비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품으로 인정받아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귀농인 주택구입 지원

남원시, 2월 10일까지 대상자 모집

남원시가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10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거공간(주택구입, 신축) 마련을 위한 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남원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금리 1.5% 또는 변동금리(5년 거주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지원받게 된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이나 남원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지리산권역 3개 면 상수도 공사 본격화



2025년까지 167억 투입

남원시가 인월·아영·산내 등 지리산권역 3개 면 지역 광역상수도 보급공사를 본격화한다.

남원시는 지난해 산내면 노후관로 개량사업을 시작으로 관내 마을 중심의 노후화 수도관을 순차적으로 개량하고 있다.

이러 오는 2025년까지 '지리산권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통해 인월·아영·산내 지구에 가압장, 송·배수관로,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투

입 사업비는 총 167억원이다.

시 상수도사업소 측은 이번 지리산권역 광역상수도 보급 추진에 따라 향후 지역 내 급수 보급률이 95%(2022년 기준)에서 99%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원(지하수 및 계곡수)의 오염으로부터 수질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갈수기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영유아 '육아수당' 최대 600만원

60개월 이하 10만원 씩 60개월

정읍시가 저출산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 '육아수당' 지급에 나선다.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공약사업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자녀 수에 관계없이 신생아·60개월 사이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10만원씩의 육아수당이 지급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역화폐(정읍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최대 60개월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2018년 2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다. 단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거주해야 하며 전입한 아동일 경우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친권자의 주민등록 기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날

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6일~27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자녀 출생 초기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수혜자 입장에서 매우 크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서 육아수당 지급에 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정읍시의회에서도 지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정읍시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육아수당을 통해 양육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